

「一樂亭記」研究

—先行 作品들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申 東 益*

序 言

「一樂亭記」는 現在까지 2種의 漢文 筆寫本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圖書館本과 金東旭 교수 所藏本이 그것이다. 全10回로 되어 있는 章回小說이며 책머리에 「一樂亭記序」가 실려 있어서 그 저작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金東旭 教授本에는 “已巳冬陽復之月 晚窓發識”¹⁾라는 記錄이 있어서 作者와 저작 年代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其中所謂南征記 感義錄數篇令人說去便有感發底意矣”라하여 謝氏南征記와 彰善 感義錄의 價值를 높이 評價하고 있다. 謝氏南征記나 彰善感義錄을 李朝 小說의 名篇으로 舉論한 것은 이미 여러 곳에 보이지만²⁾ 여기에서는 作者가 이들 作品을 본받아 지었다는 暗示를 읽을 수 있어 注目된다.

金起東 교수는 概評에서 一樂亭記는 9回로 된 章回小說이며 謝氏南征

* 同門·육사

1) 「一樂亭記」(筆寫本, 金東旭藏)

金東旭, “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對하여”, 藏著 池憲英先生 華甲紀念 論叢, 1971.

2) 如此小說我東人則量淺才短亦不能領略 間巷間流行者只有九雲夢西浦金萬重所 撰稍有意義 南征記北軒金春澤所著世傳(李圭景, 五州衍文長鑄散稿, 小說辨 證說).

稗官小說非荒誕無則浮靡 其可以教民飾裨世教者 唯南征記乎(北軒集).

接謝氏南征記不過小說古談其中蓋有可觀焉(李樹鳳, “漢溪 李養吾의 文學 研究”, 李在秀遷歷紀念論文集, (1972), p. 425에서 再引).

金某, 朝鮮小說史(學藝社, 1939), pp. 160-162.

趙潤濟, 韓國文學史(探求堂, 1979), pp. 255-258과 pp. 306-308.

記와 彰善感義錄의 가치를 인정하고서 이作品을 創作하였다. 男服을 하고 도피하던 權小姐가 權道로 鄭小姐와 결혼하였다가 後日 함께 徐公子의 부인이 되는 풀롯은 紅白花傳을 모방하였으며 淫婦 韋氏가 趙平香蘭등과 계교를 짜고 權부인을 음녀로 몰아 下獄시키는 풀롯은 謝氏南征記를 모방한 것 같다고 하고 家庭小說로 규정하였다.³⁾

本稿는 이러한 評價에 힘입어 先行作品이라고 생각되는 謝氏南征記, 彰善感義錄, 紅白花傳의 주요 풀롯을 一樂亭記의 그것과 對比하여 그 關聯性을 찾아보고, 그 根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明末 短篇小說들과의 간단한 比較를 시도해 보려 한다.

「一樂亭記」의 줄거리

至正中에 錢塘의 柳英이 越王城下를 舟遊하며 詩를 읊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仙人 文天祥과 陸先生이 만나 感懷를 詩로 和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柳英이 나서서 인사하고 一觴一詠하다가 새벽에 헤어졌다. 文丞相이 주는 丸藥을 먹은 柳英은 白玉樓에 올라, 文丞相이 薛秋娘의 誣告로 上帝의 노함을 입어 三仙女와 함께 輪回之苦를 당해야 한다고 내치는 것을 보고 人間世界로 내려오니 嘉靖 2年이었다. 그는 琴書로 自娛하며 隱居不出하였다.

嘉靖初에 徐閻老(名은 弼, 字는 汝霖)가 蘇州府 蕩春門外에서 尚書劉昶의 딸 劉氏와 四十年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한 仙인이 나타나 文丞相이 獲罪於天하여 謫降하였다는 꿈을 꾸고 임태하여 夢祥(字, 明瑞)을 낳았다.

嚴嵩·鄆懋卿이 政治를 그르치자 徐弼은 上疏文을 올리려다가 夫人과 公子(夢祥)의 만류로 乞骸骨疏를 올리고 一樂亭(延賓館)에서 講易하여 悠然自得하고 지냈다. 徐夢祥의 10세 생일에 蘇州知府 謝璉가 와서 시험

3)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敎學社, 1981), pp. 583-584.

하여 보고 神童이라 했다.

어느날 權平仲이 來訪하여 이야기 하던 중 徐閨老 解綏之後 嚴嵩의 擔柄國事함이 더욱 심하다 하고, 자기의 晚得女와 夢祥의 婚約을 제의 했다.明日 權平仲이 떠나려 하매 徐閨老가 家傳世寶인 玉指環을 信物로 주었다.

權平仲(名은 銓)은 吳中上虞人으로 三場試에 魁科하여 禮部尚書가 되었으며 동생 台仲(名은 鉉)은 孝廉으로 登門하여 吏部侍郎이 되었다. 平仲은 夫人 柳氏(太常鄉 宗植之女)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白連庵의 尼嫗 慈遠에게 觀音臺幘을 주고 彩雲(字는 麗卿)을 낳아 10세가 되어 徐夢祥과 婚約을 했고, 台仲의 아들 徹(字는 季澄)로 양자를 삼고 成學士 妹弟와 約婚을 하였다.

權尚書와 徐閨老가 별세한 후 嚴嵩은 權彩雲을 子婦로 삼으려고 다시 청혼했다. 權鉉은 준열히 거절했다. 嵩은 鄭懋卿을 시켜 鉉을 모함하게 하고 옥에 가둔 후 權鉉의 從姪 權給事를 시켜 滅門之禍를 피하려거든 彩雲을 嚴府에 出嫁시키라고 위협했다. 채운은 마지 못해 허락했다.

이날 밤 彩雲은 男子巾服으로 侍婢 春香(男粧)과 出走했다. 雲母驛에서 變柏村 翰林學士 鄭光玉과 幼母를 만나 채운은 鄭流(二錦齋尚 糯園公主)의 딸과 婚約을 맺었다. 成禮한 權彩雲(徐夢祥이라 변성명)은 신부 鄭彩仙(字는 月娥)과 凝香閣에 거처하다가 三日만에 신분을 밝히고 악혼자, 徐公子께 친거하여 失信之責을 免하려 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다음해 徐夢祥은 과거보러 가다가 武昌 壯元橋에 이르러 美人 章桂仙(故縣丞章弘之女)을 만났다. 章桂仙이 巾櫛을 받들겠다고 請하는 것을 후일로 미루고, 科場에 나아가 壯元을 했다. 얼마 있다가 權鉉이 상소했다. 姪女와 徐壯元은 이미 約婚한 사이로 今年이 成禮의 해인데 일찌기 嚴嵩의 모함을 받았었다는 것과 嚴嵩이 三十年間 國權을 把들려 그르친 일 등이 그 요지였다. 鄭光玉이 또 天子께 상소했다. 天子가 主婚이 되어 광한궁에서 徐夢祥과 權·鄭兩小姐는 一時에 交拜之禮를 行하고,

첫 날 밤은 絳雲殿에서 權小姐와, 이튿날 밤은 翠華宮에서 鄭小姐와 지냈다.

鳳儀洞에서 모친을 모시고 지내던 徐夢祥은 어느 날 武昌의 美人事를 이야기했고, 모친과 兩부인의 승락을 받아 韋氏를 데려다 行禮하고 春風樓에 거처하게 했다. 어느 날 밤 春風樓에서 淫樂[○] 들려 왔다. 權夫人이 貢善하매 韋氏는 不平을 품고 趙平을 불러 동침하고 간계를 꾸몄다.

趙平은 누차 嚴嵩에게 徐夢祥이 傷風悖倫之類임을 말했고,嵩은 經筵에서 夢祥을 탄핵했다. 權給事도 옆에서 亟正王法하라 했다. 前蘇州知府刑部尙書 謝瑋는 목격자로서 徐夢祥의 神童, 孝, 德을 들어 上奏했다. 天子는 특별히 刑을 감하여 徐夢祥을 巴陵에 流配시켰다.

趙平은 매일 저녁 春風樓 韋女에게 왔다가 새벽에 돌아갔다. 그는 權夫인의 銮釧環珮를 丁香을 시켜 얻고, 權夫인의 필적을 韋女에게서 얻어내어 친구 胡英을 시켜 權夫인 쳇소에 들게 한 뒤, 門卒을 매수하여 담을 뛰어넘는 자를 무조건 斬하라 했다. 담을 넘던 胡英은 죽고 그가 가졌던 玉環과 權夫인 필적의 가짜 書札中 '去一老婆云云'에서 權夫인이 간부와 짜고 母夫人을 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權夫人 淫書事는 趙平이 嚴嵩에게 알렸고嵩이 天子께 上奏하였다. 天子는 孕胎한지 9個月된 權夫人을 解娩한 뒤 처결하려 했으나 이날 밤 權夫人은 自衣女子(觀音畫幘)의 인도로 白玉彩輜를 타고 慧遠에게 이른다.

한편 徐夢祥은 巴陵에 유배가는 중 舟行五日에 通州에 이르렀다. 狂風이 지나고 浪靜하여 쉬고 있는데 山西人 羽林將軍 洪義甫(彥民)가 나타나 百年을 門下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16일 후에 巴陵에 도착했다. 月餘後에 權한림, 鄭한림, 洪義甫는 떠나갔다. 數月후 凤儀洞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 權夫인이 모함을 당해 下獄中羽化而去하여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山에 오르고 배를 타고 노닐던 徐夢祥은 林和靖 古粧에서 葛巾道服한 柳英雋卿으로부터 道法을 배우고 太公兵書 伏妖丹符

를 받아 가지고 나왔다.

嘉靖 二十年 봄에 文華殿에서 科擧를 보아 權公子가 壯元(甲科)을 하여 春防學士가 되고, 成學士는 卜日成禮했다. 이때 北虜 駐律이 幽州제독 劉弘을 쳐 降服받고 河北 四十六郡을 차지하였다. 이를 토벌하기 위해 徐階(閣老), 權徹, 謝瑋등의 친거로 巴陵의 徐夢祥을 大同馬大將軍을 삼고 前鋒將軍 戚繼光, 右翼將 趙公遂, 賛軍校尉 薛慶運, 行軍長史 洪義甫로 더불어 駐律을 征伐케 했다. 漢沱河에 이르러 駐律(大燕王)軍을 大敗시키고 駐律은 매복했던 洪義甫軍에게 生縛되었다. 元帥가 놓아주었더니 河北의 龍城王(雷石)과 다시 三十萬軍으로 공격했다. 火攻으로 물리치고 雷石과 駐律의 목을 베었다. 勝利의 捷書를 받은 天子는 親率御樂하고 나가 맞이하였다.

얼마 아니되어 이제는 通州知府 鄭光琰이 南海賊 董鐵山이 舉兵하여 그 妹 祝融夫人과 함께 공격해 온다고 했다. 황제는 다시 徐夢祥을 토벌장군으로 삼았다. 拜命하고 즉시 漢沱에서 배를 타고 제장을 드려하여 臨元城 盤蛇谷의 毒霧를 헤치고 25일만에 通州에 이르러 望洋亭에서 百十萬의 적을 만나 大敗시켰다. 도주한 鐵山이 雪債하려 하다가 荆州 雲母山人 衛八兒가 七星寶刀를 내어놓고 귀화했다는 말을 듣고 降服했다. 徐元帥는 철산의 결박을 품고 大宴을 베풀었다. 이때 權尚書가 白雲之間에 나타나 權夫인의 一時厄運이 다하였음과 六十年後 玉清觀下에서 父子翁婿相見之期가 있을 것이라 하고 사라졌다. 徐元帥는 錦石山 清風을 만나 衡陽之浦에 이르러 白蓮菴에서 權夫人와 아들 福星(字는 德之)을 만나고 廣西界에 이른다.

韋氏는 趙平과 음난을 자행하다가 보물을 배에 싣고 도주했다. 이때 廣西의 按廉巡撫使 權徹이 乞飯하는 蘭香을 만나 趙平(張白이라 변성명)과 韋氏가 樓鳳山下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押致하여 하옥시켰다.

天子는 徐元帥의 大功을 치하고 徐夢祥 謝瑋 洪義甫 戚繼光 등 모두 승진시켰다. 權夫人과 春香이 福星을 데리고 귀가하니 一家는 감격하고

죄인은 처형되었다.

天子는 嚴嵩을 削職 放歸田里시키고 賢良科를 보아三十人을 取했는데
林潤 杜億…등이 뽑혔다(是歲三月行賢良科取三十人 林潤杜億成萬謝敬安
柳聖讓皆與焉).

降慶二年에 蜀主 李雄이 叛上命하여 徐夢祥이 15일 만에 평정하고 머리를
베어왔다. 이후 徐公은 上疏乞歸하고 一樂亭에서 琴酒로 지내다가 八
十세되어 꿈에 仙吏를 따라가 公과 二夫人은 香案殿에 조회하고, 徐閣老
와 權尚書를 玉清觀에서 뵙고 때때로 太乙壇下에서 柳真人(英)을 만났다.

「一樂亭記」와 「九雲夢」

一樂亭記의 序話を 要約해 보면 元 錢塘人 柳英이 越王城下에 노닐다가 陸先生과 文天祥을 만나, 文丞相이 주는 丸藥을 菊露에 調服하고 白玉樓에 오른다. 文丞相은 東奎之班의 第三仙인데 白玉樓詩를 본上帝가 李賀後 第一文이라 칭찬하자 玉女 薛秋娘이 지난날 봉래궁 董中舒 輜箋之事와 瑞光之宴에서 秦貴妃 投梅之戲를 誣告한다. 이에上帝는 誣告는 妒寵疾害忠良에서 나왔다하고 文學士와 三仙女를 烟火之界 輪回之苦를 맛보도록 내친다. 문밖에서 柳英을 만난 文天祥은 내세에 인연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과연 후일 柳真人은 林和靖 古粧에서 徐夢祥에게 道法을 가르쳐 주고 후일 또 太乙壇下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古典小說에 흔히 나타나는 佛教的인 無常觀 輪回思想을 읽을 수 있으며 아울러 道教的인 思想을 볼 수 있다.⁴⁾ 한편注目되는 것은 神仙世界의 人物인 文學士와 三仙女가 人間世上에 내려와 이 作品의主人公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九雲夢의 性眞과 八仙女가 人道還生하여 별이는 것과 흡사하다는 점이다. 다만 性眞은 黃巾力士가 領去하여 閻王에게 交付할 때까지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八仙女도 閻王에

4) 鄭鍾東, 古代小說論 (螢雪出版社, 1970), pp. 105-107와 122-129.

개 妾等之升沈苦樂이 皆懸於大王之手라 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사설이 더 들어 있다.⁵⁾

文天祥과 두仙女는 徐夢祥과 樓彩雲 鄭彩仙으로 태어난다. 嚴嵩의 강제 청혼을 피하여 男服으로 逃走하던 樓彩雲은 徐夢祥을 생각하고 鄭彩仙과 결혼하며, 糊塗公主의 양녀가 되었는데 그녀는 公主二女即朕之二女라는 왕의 뜻에 따라 大內에서 婚禮를 치루는데 이 부분은 御妹가 된 英陽公主(鄭瓊貝)와 蘭陽公主가 太后娘娘의 엄명으로 宮中에서 行禮하는 것과 방불한 바가 있다.⁶⁾

한편 徐夢祥이 一臘二僮을 데리고 科舉보러 가는 길에 武昌 壯元橋에서 三尺洞簫에 琴聲으로 和答하는 美女 韋桂仙을 만나는 상황이 또한 楊少游가 과거보러 가다가 洛陽 天津橋 酒樓에서 桂蟾月을 만나 後日을 約束하는 대목을 연상케 한다.⁷⁾

韋桂住은 ‘母朱氏嘗夢仙女而生 故名桂仙’이라 하여, 薛娘所誣 亦出於微恩妬寵害忠良”이라는 句節과 연관지어 볼때 前生의 薛秋娘이 곧 韋桂仙임을 알게 되고 淫行과 妒忌로 徐家에 풍파를 일으켰다가 결국 行刑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따져 보면 一樂亭記의 序話는 치밀한 계산밑에 제시되었으며

5) 鄭炳昱·李承旭 校注 九雲夢(民衆書館, 1972), pp. 17-23.

漢文諺吐 九雲夢, (新舊書林, 1920), pp. 6-9.

6) 鄭炳昱·李承旭 校注 九雲夢 民衆書館, 1972. pp. 312-313.

7) 이 부분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公子自袖中出三尺洞簫 吹喚春紅一闋… 忽聞琴聲隔樓清絕可聽 俄而有一美人 年可及笄 姿態嬌婷 門戶而入 抱琴而拜 曰 妾故縣丞 韋弘之女也 母朱氏嘗夢仙女而生 故名桂仙…公子怡然笑慰曰 借乎以韋娘之聰慧恐不讀周南召南耳 且吾年比之古人之有室亦已遠矣 況至於謝東山之拂妓不亦羞乎 韋須善保江漢之貞 以待江汜之年則徐當告于慈庭 不負好期也.” (一樂亭記,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5, 亞世亞文化社, pp. 69-70)

蟾月의 寢牀에서 生더러 이르되, 妾의 終身大事를 依託하였으니 郎君은 妾의 情事를 들으소서 妾은 본디 韶州사람이라 아비 이방에 韶丞을 하였더니 不幸하여 他鄉에서 客死하나…郎君이 妾을 더럽다 아닐진데 郎君의 물짓고 밤짓는 종이 되어도 부디 姮을 것이니 郎君의 뜻이 어찌하뇨”(鄭炳昱, 校注 九雲夢 pp. 65-67).

이야기의 展開 또한 차질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作者는 序文에서 ‘南征記 感義錄數篇’ 云云하고 있는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九靈夢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음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一樂亭記」와 「謝氏南征記」

謝氏南征記는 劉延壽의 妾 喬氏가 질투와 淫行으로 劉翰林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주요 플롯을 이룬다. 여기에 嚴丞相탄핵과 劉翰林의 행주귀양, 劉翰林의 고모인 杜夫人이 劉家를 조종하는 이야기가 부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喬女의 計는 「一樂亭記」에서 章氏의 行實과一致되는 바가 많아 주목된다. 이제 그 개요를 알아보기로 한다.⁸⁾

사후당(謝公黨)의 딸 정옥이 劉延壽와 성친한지 십년이 넘었는데도 후사가 없어 番彩鸞을 맞아 妾을 삼아주었다. 교씨는 百子堂에 거처한지 반년이 못되어 임태하고 생남(掌珠)하였다. 어느 날 밤 거둔고소리를 들은 사시는 여자의 행실은 구고 봉양과 군자를 살피는데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謝夫人이 임태하자(麟兒) 교녀는 납매를 시켜 낙태하는 약을 먹이고, 십냥이 교씨를 도와 사부인 해할 꾀를 꾸민다. 한편 石郎中の 천거로 董清이 문객으로 들어와 가사를 주관하며, 喬氏는 간활한 동청과 사통한다. 喬氏가 동청으로 하여금 사부인 필적을 보며 고이 한 물건에 써서 유한립에게 보이고 태워버린다.

사급사 부인 환후 침중하여 사씨는 인아를 데리고 신성현 친정에 가 수 월을 지내고, 유한립은 천자의 특사로 산동백성의 질고를 살피러 떠났다. 교녀는 동청과 부부같이 지냈다. 동청이 사씨의 시비 설매를 시켜 옥지환을 훔쳐내어 冷振에게 주었다. 劉翰林은 순무중에 냉진이 가진

8) 朴晨義 譯註 九靈夢·謝氏南征記(正音社, 1964)를 대본으로 하고, 金東旭, 古小說版刻本全集(一, 四)을 참조하였다.

옥지환을 보고 의심한다. 집에 돌아온 한림은 사부인께 선인이 주신 옥지환을 가져오라 했다. 사부인이 찾아보니 없었다.

교녀가 아들 鳳雛를 낳았다. 동청이 시키는대로 아들을 죽이고 책임을 사씨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남매는 장주를 죽이고 설매를 매수하여, 사부인이 춘방을 시켜 장주를 죽였다고 무고했다. 교녀는 사부인이 간부를 두고 있다 하고, 유한림은 옥지환을 주고 통간했다고 꾸짖으며 사씨를 내쳤다. 성도의 시부묘소아래에서 지내던 사씨는 동청이 보낸 두부인의 거짓편지를 받고, 기뻐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최부인의 지시로 거짓편지임을 알고 장삼의 배를 타고 장사방으로 도피했다. 냉진은 강도 수십인을 데리고 쫓아갔으나 허탕쳤다.

풍랑이 크게 일어 사부인은 토사병이 나서 배를 매고 일간 초우에 들었다. 16세된 임씨녀의 환대를 받고 지환 한 개를 주고 작별했다. 사부인은 杜 추관이 성도로 부임했다는 말을 듣고 투신하려다가 잠간 조는 사이에 아황여영 진간 반첩여등을 만나고 여승과 여동을 따라 군산 수월암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16년전에 찬을 지어주었던 백의관 음화상을 보았고 여승이 우화암 묘혜임을 알았으며, 임씨녀는 묘혜의 질녀 취영(秋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녀는 십냥으로 하여금 한림의 총명을 가리우는 요물을 정당 사면에 물어 두게 했다. 도원관(朝天館) 陶眞人이 침벽에서 木偶人 여럿을 꺼내고 시첩의 짓이라 했다. 한림은 춘방이 죽을 때 남매 등을 꾸짖었음을 의심한다.

동청은 교녀에게 유한림을 독살하자고 했다. 동청은 한림의 책상에서 엄승을 간악한 소인이라 비유한 글을 가져다 엄승에게 주니 엄승은 천자께 아뢰었다 천자는 한림을 행주로 귀양보내었다.

동청은 엄승의 가인이 되어 陳留縣 승이 되고 계림태수가 되었다. 한림이 풀려나 무창으로 가는 길에 동청과 교녀의 행차길과 마주치게 되고 설매로부터 옥지환도적, 장주 죽임 한림의 행주귀양 등 모두가 교녀 동

청 십냥의 공모임을 듣고, 교녀의 투기와 혐벌의 혹독함, 인아를 죽이 라고 하여 수풀에 놓은 일 등을 일일히 알아내었다. 교씨와 동청은 장수 수십인을 보내어 유한림의 목을 베어오라 했으나 배를 만나 한림은 위기를 모면했다.

묘혜와 사부인을 만난 유한림은 교녀 동청 냉진 십냥등의 케흘에 속은 것을 사죄하고 집안을 수습하였다.

교씨는 냉진과 사통하고 냉진은 등문고를 쳐 동청의 비위를 고발하여 죽게 한 뒤 둘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으나 정태관이란 도적에게 다 빼앗기고 교녀는 낙양에서 창기(칠냥)가 되어 있었다. 유한림은 예부상서 부임길에 매파를 시켜 거짓 증매로 교낭자를 데려와 혼을 내고 종족들 앞에서 음부 교녀의 죄상을 들어 알리고 타살시켰다.

칠년만에 다시 화합한 유한림부처는 묘혜의 질녀 임취영을 맞아 성례하고 인아(사씨의 아들)를 상봉하고 임씨는 웅, 준, 난, 3자를 낳고 이들은 모두 높은 벼슬을 하였다.

謝氏南征記는 明나라 嘉靖年間의 순천부 劉炫一家를 中心으로 事件이 展開되어 있는데, 그 對立構造를 살펴 보건대 家庭內의 갈등과 君臣間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교녀의 行實은 그 악독함과 음설함이 極에 달하고 있다.

謝부인의 천거로 劉延壽의 妻이 된 喬氏는 淫樂을 듣고 충고하는 謝부인께 앙심을 품고, 낙태하는 약을 먹이며, 사부인의 필적을 본떠 음녀로 몰아세우려 하고, 옥지환을 훔쳐 冷振에게 주어 그와 사통하는 듯이 보이게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죽여(掌珠) 사부인이 사주하였다고 모함을 하여 내침을 당하게 하며, 杜부인 필체로 편지 하여 죽여 없애려 하다가 실패하고, 침벽에 목우인을 만들어 넣어 사랑을 받으려다 아니되니 毒藥으로 유한림을 해하려 하기까지 한다. 유한림이 행주로 귀양간 뒤에는 버젓이 동청의 부인행세를 하며 사부인의

아들 인아를 물속에 넣어 죽이라 하고, 동청이 계림태수 부임길에서 유한림이 나타나자 장수 수십인을 보내어 죽이려 하며, 뒤에는 冷振과 사통하고 창기가 되었다가 매파를 통해 다시 유한림의 첩으로 오는 창피를 당하고 타살된다. 물론 동청이라는 잔악한 인물이 중간에 끼어 저지른 행동들이지만 그녀의 행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極惡한 짓이었다.

君臣間의 갈등은 주로 嚴嵩의 奸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南征記에서 처음으로 엄승과의 관계를 보이는 부분은 유연수의 부인감으로 매파가 천거하는 ‘엄승상의 손녀’이다. 급제한 유한림은 강직한 선비집 안의 사급사댁 소저를 취한다. 천자가 유한림의 벼슬을 돋우고자 하나 엄승이 꺼리므로 올려주지 못한다. 이때 간의태후 서서가 엄승을 논책 했다가 삭직당했고 유한림도 상소문을 올렸다가 임금의 꾸지람을 듣고는 칭병하고 조정에 들지 않았다. 또한 유한림이 엄승을 잔악한 소인에 비겨 글을 쓴것을 동청이 엄승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關內에 알려 國法에 따라 죽이려 하는 것을 좌우에서 간하여 행주에 귀양보내게 되었다. 그뒤로 동청은 엄승의 가인이 되어 진류현령이 되고 이어서 엄승의 진언으로 계림태수에 부임한다. 동청은 엄승을 극진히 섬겨 냉진을 시켜 십만보화를 보냈으나 이미 천자는 엄승을 삭탈관직하여 옥에 가둔 후였고, 동청의 죄상을 보시고 엄승이 천거한 자는 다 소인이요, 배척한 자는 다 어진 사람이라 하시고 엄승의 천거한 수백명을 삭직케 하고 귀양갔던 신하들을 다 불러 쓰시게 된다. 간신 엄승은 개인의 家庭事에 간섭하여 파멸로 이끌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家의 賢臣 忠臣을 멀리 내치고 貪財에 온 힘을 다 기울었던 人物로 등장한다.

家庭과 탄압화는 어쩌면 「一樂亭記」의 그것과 完全히一致한다고 할 수 있으며 嚴嵩의 개임도 대체로 동일하다. 이제 가정과 탄압화를 도표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謝氏南征記는 蕭氏와 董清의 奸惡하고 음탕한 行實을 중심으로 極惡하게 그려져 있으며 「一樂亭記」는 이미 序文에서

가정파탄삼화	謝氏南征記	一樂亭記
주 인 공	喬氏(彩鸞) 본래 벼슬하는 집 딸 용모자색이 출중 百子堂에 거처 거문고 소리듣고 謝氏충고 남매, 십냥 설매 춘방 董清	韋氏(桂仙) 故縣丞韋弘之女 武昌美人 春風樓에 거처 琴聲을 듣고 權夫人충고 蘭香 丁香
하 수 인	冷振(동청의 친구) 수월암 묘혜(妙慧) 백의 관음화상	趙平 胡英(조평의 친구) 白蓮庵尼嫗 慧遠 權夫人宅百子樓上에 걸렸던 觀音畫幀
	董清이 엄승을 간악한 소인에 비유한 유한림의 글을 입수 엄승에게 바치다. 천자 유연수를 행주에 귀양보냄. 사부인의 필적을 본 뜨고, 杜夫人의 필적을 본떠 사씨를 모함하고, 사씨의 시비 설매를 매수 옥지환을 훔쳐 冷振을 주어 의심케 하고 내치게 한다. 묘혜의 도움으로 구조된다.	趙平이 엄승에게 徐夢祥이 不孝不義 不仁之人이라고 하고 엄승은 天子에게 아뢰어 岳州府 巴陵에 우배시키다. 筆跡을 본뜨고 玉環을 훔쳐 權夫人이 胡英과 사통한다고 모함하여 權夫人은 下獄되었다가 혜원의 도움으로 살아남.
	董清은 陳留縣令→계림태수가 되고 喬氏는 완전히 동청의 부인 행세→娼妓 설매의 실토(교씨 투기와 형벌 이 혹독)	蘭香이 실토(韋氏 형벌혹독, 투기)

南征記를 높이 評價한 바와 같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모방하여 韋氏와 趙平으로 대치하여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胡英이 權夫人 쳐소의 담을 넘다가 門卒에게 죽고 그가 소지했던 위조편지와 옥지환으로 인하여 權夫人이 간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케 한 대목은 더욱 여실히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一樂亭記」에는 嚴嵩의 강제

청혼에 못이긴 權夫人이 男裝으로 逃走하다가 겪는 일과 徐夢祥이 外敵을 격퇴시키는 軍談이 분량도 많고 더욱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一樂亭記」와 「彰善感義錄」·「紅白花傳」

「彰善感義錄」은 여러 先學들이 우리 古典小說中 걸작으로 꼽고 있는 작품이다. 「一樂亭記」의 저자도 이를 높이 評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 作品이 차지했던 比重을 해아릴만 하다. 著者나 著作年代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英正祖代의 趙聖期라는 분이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 學界的 有力한 見解가 아닌가 한다.¹⁰⁾

車溶柱氏는 “彰善感義錄 해제”에서 著者 및 제작시기, 題名, 主題 등에 대한 該備한 考究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論議를 정리하고 작품전체의 저변에 貫流하고 있는 사상은 ‘孝’라 하고, 소재중심으로 보면 ‘家庭小說’이요 主題중심으로는 ‘道德小說’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¹¹⁾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품의 주요플롯을 다른 作品에 삽입된 경우와 對比하여 봄으로써 古典小說 저작의 실상을 일면이나마 看取하고 나아가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彰善感義錄」의 줄거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明初 花雲의 七世孫인 兵部尙書 汝陽侯 郁이 三夫人(沈·姚·鄭)을 거느리고 살았다. 沈氏는 璞(長男)을, 姚氏는 딸 聘仙을 낳고 早世, 鄭氏는 珍(字荊玉)을 낳았다. 郁의 누이는 太常卿 成琰의 부인이었는데 寡居하여 아들 成儒을 페리고 같이 산다.

嚴嵩이 秉權하매 南標는 상소 獨諫하다가 流配되고, 郁은 乞骸落鄉하여 花氏의 世居之地인 越王城에 돌아와 살았다.

10) 金某,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p. 160-162.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9), pp. 256-258.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pp. 350-351.

文秉奎, “彰善感義錄攷”, 青丘大 어문학 9호. (1963), p. 1.

11) 車溶柱, 彰善感義錄 (螢雪出版社, 1978), pp. 203-231.

郁이 珍의 총명을 사랑하니 沈氏 모자는 珍, 聘仙, 鄭부인을 미워한다. 璞은 병부상서 임준의 여아와 혼인하였고 珍은 山東 이부시랑 윤혁(燦)의 딸과 南標의 딸(燦의 養女)로 定婚하였다며, 聘仙은 유광록의 아들 柳聖讓에게 許婚하였다. 郁과 鄭夫人이 得病하여 임종시에 成夫人께 家事を 부탁하였다. 성부인이 성위(琰의 弟)의 초청으로 동성 고택에 돌아간 사이에 심씨는 珍과 聘仙을 학대했다. 璞은 방탕하여 범한 장평 같은 친구를 사귀고 趙女(월향)와 운우지락을 이루며 副室로 맞이하였다.

윤시랑과 조씨는 쌍별이 품에 드는 꿈을 꾸고 쌍태하여 옥화(玉花) 여우(汝玉, 男)을 낳았고, 남표와 한씨는 채봉(彩鴻)을 낳았다. 자현암의 尼姑 청원이 권선하매 관음화상을 그려주고 황금과 비단으로 시주하였다.

엄승을 탄핵하던 남표는 화·서 양공의 간언으로 악주에 귀양가다가 죽으려는데 청성산 과선공에게 구조되고, 남소저(채봉)는 선녀가 주는 감로수를 마시고 살아나 과룡 쌍계촌 진도독집에 찾아든다. 진도독은 오씨와의 사이에 채경(彩瓊)을 두었고 진채경은 윤여옥과 정혼한 사이였다.

가을에 오부인이 진·남소저를 데리고 산동 윤시랑댁에 갔다. 윤시랑은 화진과 윤·남양 소저를 정혼하고 대현군자로 태서하였다 하고 윤·남소저에게 흥옥비년와 청옥월패를 信物로 내놓았다.

진평중(도독)이 총독 양석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다. 전에 엄승의 수양자 조문화가 진소저를 자부로 삼고자 청혼하는 것을 거절하매 노안부제독으로 내치고, 양석을 시켜 태원전 삼천여만냥을 도적질 했다고 모함하여 옥에 가두었다. 오부인의 종형 오낭중의 강권으로 진소저가 허혼하매 진평중은 감형시켜 운남땅에 귀양보낸다.

조문화의 혼인재촉에 진소저는 유모아와 시비 운섬으로 더불어 남북을 하고 회남으로 행하다가 회남 운몽산에 숨어 창운을 공부시키는 진형수(숙부)를 만나보고 평원역 객점의 백련교에서 백경(자는 성규)의 누이를

천거받아 윤시랑의 아들 윤여옥이라 속이고 정혼하였다.

화진은 15세에 산동 윤시랑댁에 가서 윤·남 양소저와 혼례를 치루고 윤소저는 응향각(凝香閣)에, 남소저는 농취당에 두었다. 백경이 윤여옥에게 백련교에서의 혼약을 잊지말라고 편지했다. 조정에서 과거를 보아 심십인이 급제했다. 화진은 장원이오 유생, 성생도 급제했다. 성준은 복건성 정현태수로 부임길에 모친인 성부인을 모시고 떠난다. 성부인은 임소저에 가사화목을 당부했다.

성부인이 떠나자 심씨는 욕설을 퍼붓고 박대함이 자심하며, 화진은 형 춘의 권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일년 말미를 얻는다. 璞은 趙女를 맞아 침을 삼았다. 조녀가 임소저를 물아내려고 주야로 춘에게 고해바쳤다. 시녀 난수와 범한을 사통케 하고 계향을 피어 흥예지물을 심부인 처소에 묻고 임씨 소위라 하고 내치게 했다. 珍이 애음하고 간했으나 임부인은 내침을 당해 삭탈당한 오빠 임윤집(하남)으로 돌아갔다.

조녀는 윤·남부인으로부터 흥옥차 청옥패를 빼앗아갔다. 범한은 엄승의 회하인 어사 『언무경』(=경씨)에게 돈을 주고 화진의 불효를 무고하고 남표의 딸을 취처함을 아뢰니 상이 珍을 죄인의 딸이라 하여 소실로 만들었다. 윤·남부인이 실성분음하는 말을 엿들은 趙女가 심씨에게 고하여 윤·남부인을 가두고 죽우당(珍의 방)도 문을 잠갔다.

조녀는 죽에 독을 넣어 남부인을 죽이고 노자 막동이에게 버리라 했다. 자연암 청원이 꿈에 관음보살이 주는 환약(세개)으로 남부인(채봉)을 소생시켰다. 남부인은 계행과 함께 남복을 하고 청원을 따라 죽중으로 갔다.

범한이 화춘·화진을 죽이고 금보를 모두 취하려 했다. 남부인 필적을 얻어 윤부인과 화진이 심씨 모자 살해음모를 꾸민다는 글을 남기고, 범한의 친구 유금에게 심씨를 죽이라 하다.

심씨는 소홍태수에 장초를 올려 진을 속히 치결하라 했다. 태수 최행

이 미결하고 있을 때, 도어사 하춘해가 문초하다가 화진의 원역함을 알고 잘 보호하게 한다. 심씨에게 내쳐 유이숙과 혼인한 유모 계화가 화진의 옥바라지를 극진히 하며, 하춘해 또한 하인 왕겸을 시켜 화진을 보호케 한다. 엄승의 명으로 화진은 경사에 호송되었다. 하춘해와 태사서서가 천자께 간했다. 황제는 병부상서 정필에게 염핵하라 했다.

장평과 화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윤부인을 엄세번의 후처로 보내고 옥사를 신속히 처리하려 한다. 윤공자가 과거보러 가는 길에 화부에 들렸다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옷을 바꾸어 女裝하고 윤부인 대신 교자를 타고 嚴府에 들어갔다. 女裝한 윤공은 화진이 옥문을 나서면 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엄세번은 여동생 월화에게 동침하게 했다. 윤공자는 환성회학으로 지내고 나서 윤여옥임을 밝혔다. 월화는 열쇠로 다섯문을 열어 주고 가약을 잊지 말라 하고 내보내었다.

화진은 감형되어 유이숙 왕겸을 데리고 적소에 갔다. 범한이 형부 압리인 이소와 배삼을 시켜 독살하려 했다. 화산역에서 서안부 조총병의 휘하부장 유성희를 만나 이 배를 회개시켜 촉종에 무사히 당도했다.

월화는 홍씨(엄승처)에게 윤공자와의 일을 실토하고 임승도 알게 된다.

윤공자는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진소저가 男服하고 백련교에서 백소저를 만나 경혼했었던 일을 말했다. 윤공자는 진·백 양소지를 한 날에 맞아 결혼했다.

촉땅에 정배은 화진은 운수동에 가서 팍선공(신인)과 남표부부를 만나고 은진인(상선)을 만나 족자와 부작과 육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8개월 만에). 해적 선산해의 노략질을 평정하고자 유성희가 천자의 명으로 화진을 모시러 왔다. 화진은 조공수 척계관 유성희로 장군을 삼아 공격했다. 산해가 요술을 부리자 부작을 써서 격퇴시켰다. 남방에 웅거한 산해를 치기 위해 척계관 유성희 왕겸 유이숙 조공수등을 선봉장으로 삼고 안남지경에 나아갔다. 안남국 사신 마철의 구원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은 만화국왕 선산해는 8만을 이끌고 출발했다. 그사이 마철은

염초와 유황으로 만화국 궁궐을 불살랐다. 선산해는 설성문의 복병에게 패하고, 화림곡에서 왕립의 복병에게 혼이 난다. 보운산의 비천검 이팔아(미녀)를 자객으로 보냈으나 그녀는 화진에게 감복하고, 선산해가 신병을 부려 공격했으나 화진이 부작막대를 휘둘러 소멸시키고 선산해를 사로잡았다. 안남왕이 아양공주를 유성회와 혼인시켰다.

축적 채백관이 반역하여 화진은 다시 서쪽으로 채백관토벌에 나섰다. 성도 동량을 옹거하고 대당이라 국호를 내세운 채백관을 설성문을 시켜 평정했다. 화진이 승전회군하여 일가가 다 모여 서로 잘못을 사죄했다. 임부인(화춘처)을 모셔오고 윤·남 양부인을 맞아 청옥페 홍옥차를 찾 아주었다.

범한은 누금에게 죽고 누금과 요녀는 하옥되었다.

엄승이 대역죄에 몰려 가산은 적몰하고 흥씨는 죽고 월화와 유모는 양제원에 과화했다. 월화는 운여옥의 소실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창선감의록은 複雜한 플롯을 가진 장편소설이다. 이야기는 크게 세가지로 둑어볼 수 있을 듯하다. 화우의 첫째부인 沈氏와 그 아들 춘 및 춘의 후실 조녀, 춘의 친구 범한 장평등의 음모로 벌어지는 花氏家의 파란, 嚴崇의 擅權과 政治的 모함에 따른 結婚譚, 大元帥 花珍의 外賊征伐譚 등이 그것이다.

妖妾과 豪夫들이 일으키는 음모는 謝氏南征記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며, 「一樂亭記」에도 그細部에 이르기까지同一한 상황으로 기술되어 있다.

花珍이 外賊을 물리치는 軍談은 南征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후술 할 紅白花傳에서도 桂一枝의 父親 桂山人이 兵部尚書 魏公을 도와 奇策을 내어 北夷를 물리친다는 간단한 기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一樂亭記」에 보이는 군담은 花珍의 개선담과 방불한 경경이다.

徐夢祥은 林和靖 古粧에서 柳英에게 道法을 배운다. 巴陵에 정배되었던 徐夢祥은 洪義甫등의 천거로 河北之亂을 일으킨 鮐律과 龍城王 雷石

을 火攻으로 공격하고, 南海賊 董鐵山과 그의 妹 祝融夫人을 물리치며 (이때 衛八兒가 七星寶刀를 드리고 귀화), 蜀主 李雄의 반란을 평정하고 목을 베어오는 등, 戚繼光·趙公遂·薛慶運·洪義甫 등으로 더불어 武功을 세우는 대목은 花珍이 蜀땅에 정배중 은진인을 만나 족자와 부작과 육도를 배우고 서안부 유성회의 천거로 척계광 조공수 유성회 설성문 왕립 엄진 등과 함께 해적 선산해를 물리치고 남방에 옮겨한 뒤에는 안남왕 진홍과 협동으로 神兵을 부리는 선산해를 사로잡으며, (이때 보운산 비천이 팔아가 자객으로 왔다가 팔쳐비수를 받는 화진에게 감복) 측적 채백관을 설성문을 시켜 정벌하는 등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군담이 방불하다. 「一樂亭記」는 「南征記」와 「感義錄」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끝으로 彰善感義錄의 異色의인 결혼담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누이 대신 女裝을 하고 媒으로 들어갔다가 도리어 일세번의 누이를 媒으로 맞이하는 尹汝玉과 嚴月和의 이야기이며¹²⁾, (남정기·일낙정기에는 없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陳彩瓊과 白小姐의 婚約으로 尹汝玉이 陳小姐와 白小姐를 同時에 맞아들이는 결혼담이 그것이다. 그 밖에 안남국 아양공주 순교와 유성회의 결혼담도 있기는 하다.

陳彩瓊은 엄승의 수양자인 조문화가 자부로 청혼하자 男服을 하고 시비와 도주한다. 평원역 객점에서 백경의 누이를 만나 윤공에게 친거할 생각으로 尹汝玉이라 속이고 혼약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뒤에 알게 된 윤여옥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진·백 양소저를 맞아 혼례를 치룬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紅白花傳의 전체 줄거리를 이루고 있으며 「一樂亭記」에도 매우 중요한 삽화로 나온다.

紅白花傳의 女主人公 苟織素는 呂丞相의 아들 尹廷彥의 끈질긴 구혼을 받는다. 부친 苟景華의 罪를 구해준 呂丞相을 생각해 결혼 승락을 한 織素는 玉清觀의 女道士가 말한 義陽郡主의 딸 薛出蘭을 만나보고 자기

12)拙稿, “喬太守亂點怨鶯譜에 관하여”, 韓國古典散文研究(同和文化社, 1981), pp. 210-212 참조.

대신 약혼자인 桂一枝의 配匹을 삼아주고자 하여, 蘭芝를 시켜 桂一枝의 이름으로 詩를 지어 보내고 男子巾服을 하고 郡主宅에 가서 婚禮를 치루고 半月을 함께 지내고 과거보리 떠난다. 순직소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된 薛幽蘭은 繖素를 위해 서울에 가서 大長公主로 하여금 昭德宮 萬貴妃 所生 爪主를 呂邦彥과 결혼시키게 하고 둘이 함께 桂一枝를 부군으로 맞는다. 방해인물인 呂丞相이 嚴嵩과는 대조적으로 간악한 人物이 아니며 荀家와의 갈등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¹³⁾ 반면에 「一樂亭記」에는 嚴嵩이 國政을 취두르고 간악함이 심하다. 嚴嵩은 權尚書의 딸 彩雲으로 자부를 삼고자 청혼했다. 尚書가 죽은 후에는 동생인 權侍郎에게 다시 청혼했다. 준열히 거절하자 鄭懋卿을 시켜 모함했다. 淩郡太守時 五十萬貝를 썼다는 것이다. 멀둔지화를 免하려고 權小姐는 허락했으나 男子巾服을 하고 야밤에 도주했다. 山西 雲母驛에서 鄭駙馬宅 유모와 아들을 만나 雙栢村에 가 徐公子(夢祥)라 거짓 말하고 鄭彩仙(月娥)과 凝香閣에서 혼례를 치루었다. 그날 밤에 채선의 모친인 糊園公主께 顛末을 이야기하고 양녀가 되었다. 후에 徐夢祥은 壯元及第했고, 皇室에서 主婚이 되어 광한궁에서 權·鄭小姐를 함께 맞는 혼례를 치루었다. 한편 謝氏南征記에서도 이러한 혼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謝부인이 장삼의 배를 타고 수로 오천리 장사당으로 피해 가던 중 화음현에 이르러 토사병이 나 배를 강가에 대고 임씨(16세)집에서 수삼일을 지낸 후 지환을 주고 떠난다. 뒷날 사씨는 유한림에게 묘혜의 질녀인 林秋英을 천거하여 후사를 이으라 했고, 후에 그녀는 웅·준·난 3자를 낳았다. 이때 사씨가 변복(男服)을 하였다는 말은 보이지 않으나 (京板本 3종도, 동일함) 피란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男裝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作品들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들의 특이함에서 우리는

13) 拙稿, “紅白花傳 小考”, 국어국문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국어국문학회 (1983), pp. 213-219.

紅白花傳 謝氏南征記 · 彰善感義錄 一樂亭記의 상호 영향관계를 규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생각할 것은 「南征記」의 杜夫人과 感義錄의 成夫人役이다. 「一樂亭記」에는 나타나지 않는 人物로서 주인공 선친의 부탁으로 친정집안을 잘 다스려 나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類型의 人物은 中國小說에서 흔히 보인다.

妨害人物 嚴嵩과 沈小霞相會出師表

다음에는 妨害人物인 嚴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嚴嵩은 「謝氏南征記」「彰善感義錄」「一樂亭記」에서 거의 같은比重으로 國權을 놓단하고 家庭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 人物로 나온다. 실제로 嚴嵩, 嚴世蕃父子는 뇌물을 탐하고 음탕한 일을 즐기며 반대파들에 대해서 가혹했던 人物임을 알 수 있다.¹⁴⁾ 이제 筆者は 이것을 明末의 短篇小說인 「沈小霞相會出師表」¹⁵⁾에 나타난 嚴嵩과 對比하여 考察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筆者が 注視하고 있는 明末의 단편소설집인 「今古奇觀」중에는 이 作品에서만 염증이 방해인물로 나온다는 점에서다. 沈小霞相會出師表의 줄거리를 보면

嘉靖年間에 嚴嵩 世蕃 부자가 賣官鬻爵을 자행한다. 이때 沈鍊이란 忠臣이 나와 이들을 曹操父子에 비겨 말하고, “窮凶極惡 欺君誤國十大罪乞誅之”등의 내용으로 上疏한다. 沈鍊은 謗訕大臣한 罪로 내침을 당하여 長男 襄만 남기고一家가 保安州에 당도했다. 기기에서 忠義之士를 사모하는 賈石을 만나 結義兄弟하고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敬仰을 받으며 살아간다.

14) 恕寵攬權 貪賄賂 親僉邪 凡直陳時政者皆斥戮之 嵩子世蕃 為太常寺卿 父子濤惡 楊繼盛劾 嵩十大罪五奸 嵩殺之…帝寢厭嵩而親徐階 御史離應龍 極論嵩父子不法 帝令嵩致仕歸下 世蕃於理籍其家(中國人名大辭典 嚴嵩)

…朝事一委世蕃 世蕃遂招權納賄 貪利無厭…大治園亭 日縱淫樂 御史林潤發其罪 斬於市 籍其家(中國人名大辭典 嚴世蕃)

15) 「沈小霞相會出師表」는 喻世明言 第四十卷(古今小說 第四十卷), 今古奇觀 第十三卷에 수록되어 있다.

嚴世蕃이 楊順을 시켜 沈鍊의 비행을 조사하라 했다. 楊順은 沈鍊이 相國父子에게 원한을 품고 陰結死土劍客한다는 글을 보내고, 白蓮敎徒를 검거해서 沈鍊이 白蓮敎와 來通했다고 조작하여 下獄시켰다가 죽였다. 賈石은 前後出師表(沈鍊筆)를 가지고 河南地方으로 도망갔다.

楊順은 嚴世蕃이 事成之日에는 큰 벼슬을 주겠다는 約束을 안지키자 路楷의 말을 듣고 沈鍊의 家族을 다 죽이려 한다. 沈袞, 褒를 국문하여 通虜했다고 죽이고, 長子인 沈襄마저 죽이려고 張千과 李萬을 시켜 잡아오라 했다. 襄은 張과 李가 수상하다는 小妻 聞淑女의 말을 듣고 도 중에 馮主事집에 돈받으러 간다고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다. 聞淑女는 張千과 李萬이 자기 남편을 끌고가서 죽였다고 통곡하며 鐘鼓하여 王兵備에게 알렸다. 王兵備는 이 일을 本州 賀知州에게 처리해 달라고 상신했다. 문초받던 張千은 죽고 李萬은 聞氏와 함께 尼姑庵下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李萬은 襄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틀림없이 죽이지 않았으니 부부상봉할 날이 있을 것이라 실토했다.

楊順과 路楷는 嚴家로부터 큰 벼슬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吳時來란 이가 楊順의 橫殺平民立功之事를 들어 탄핵할것을 上奏하여 허사가 되었다.

沈襄은 馮主事 벽속에서 수 월을 지낸 후 聞氏가 尼姑庵에서 寄居한다는 말을 들었다. 3년이 흘렀다. 嘉靖帝는 方士 藍道行을 불러 辅臣의 賢否를 물었다. 上界眞仙의 지시대로 “高山番艸 父子閑老 日月無光 天地顛倒”라 써보이니 황제는 嚴嵩 世蕃 부자의 횡포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鄒應龍의 効奏를 받은 황제는 이들을 내치고 林潤이 또 奏하니 世蕃을 처참하고 嵩은 養濟院에서 終老케 했다. 이런 사실을 안 馮主事와 沈襄은 서울에 와 鄒參議를 통해 沈鍊父子의冤情을 물고, 尼姑庵에서 聞氏를 만나니 임신 3개월이던 아이 낳아 10세였다. 楊順과 路楷를 처결한 후 沈襄은 雲州에 가서 賈石과 沈求를 만나고 徐夫人(襄의 모친)을 모셔오고 孟氏(妻)를 맞아 一家骨肉이 重逢하였다. 沈襄은

知縣→黃堂知府가 되고 聞氏所生은 沈求와 同年進士하고, 京中이 馮主事의 重其義氣함을 들어吏部尙書를 삼았다 후에 無疾而死하여 二公(沈鍊과 馮主事)이 俱已爲神하였다.

이 작품에 나타난 嚴嵩父子의 行實은 史實과 거의 一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嚴世蕃의 狂呼亂叫 旁若無人한 行動, “坐客懾世蕃威勢, 襲中簇擁姬妾 日夜飲酒作樂 賣官鬻爵 許多惡迹”이라는 말들이 그러하여 “朕之聞其專權誤國 嚴嵩父子招權納賄窮凶極惡 欺君誤國十大罪”등의 文章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楊順, 路楷, 羅鎧, 金紹, 張千, 李萬 등 嚴嵩을 도웁는 방해人物들이 벌이는 갖가지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忠臣 沈鍊家를 도웁는 人物들은 地方에서 務農하는 賈石과 濟寧東門內의 馮主事が 있으며, 엄승을 탄핵하고 汚吏의 잘못을 上奏하는 人物로는 沈鍊外에 御史鄒應龍, 江西巡按御史 林潤, 吳時來 등이 나온다. 尼姑庵에서 임신중이었던 沈襄의 아이를 낳아 10세 되도록 기른 聞淑女 이야기는 「一樂亭記」에서 櫺夫人이 白蓮庵 尼嫗 慧遠의 도움으로 아들福星을 낳아 기르고 있다가 徐翰林을 만나는 대목과 같아서 주목된다.

이제 嚴嵩에 대해 좀더 상고하여 보면 「彰善感義錄」에서는 嚴嵩이 秉權하여 南標가 상소하다가 유배되고 花郁이 乞骸落鄉하며, 花璿의 부인이 林俊의 손녀요 林潤의 여동생인데, 沈小霞相會出師表에는 沈鍊이 上奏하다가 謗訕大臣之罪로 重打一百發去口外爲民하며, 御史 鄒應龍이 劍奏賣官鬻爵하고, “江西巡按御史 林潤復奏 嚴世蕃不復軍伍 居家愈加暴橫强占民間田產 斤養奸人 私通倭虜 謂爲不軌”라 보이며

「彰善感義錄」에는 엄승의 딸 월화가 숭이 폐망한 후 유모와 같이 養濟院에서 화를 피해 있었다고 하였는데 沈小霞相會出師表에는 월화와 엄승의 후처 흥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나嵩의 一品夫人 歐陽氏가卒하여 襲中인데도 世蕃이日夜飲酒作業하였다고 있으며 “嚴世蕃即時處斬招沒家財 嚴嵩發養濟院終老”라는 句節이 보인다.

彭善感義錄에서는 花塘의 친구 범한 장평등이 언무경을 통해 화진의 不幸함을 엄승에게 무고하고 심씨모자 살해음모를 무고하는 등 花씨집 안을 어지럽게 하는데, 「沈小霞相會出師表」에서는 楊順과 路楷 羅鎧가 沈鍊이 지은 窓鬼祭文을 변조하여, 嚴相國父子에게 원한을 품고 “陰結死亡劍客”한다고 世蕃에게 誣告하고, 白蓮教와 來通하였다는 것을 조작하여 沈鍊을 下獄시켜 斬한다. 또한 楊順은 심복인 金紹를 시켜 張千과 李萬으로 하여금 沈襄을 잡아오게 한다.

「謝氏南征記」에는 승상 엄승을 꺼리어 천자도 유연수의 벼슬을 둘우지 못하며, 간의태후 서서가 上奏하여 엄승을 論劾하다가 삭직당하고, 유한림이 상서하였다가 임금의 꾸치람을 듣고 병을 칭탁하고 조정에 들지 않는다. 동청이 유한림의 책상에서 엄승을 간악한 소인에 비유한 글을 입수하여 엄승에게 바치고 엄승이 천자께 아뢰어 행주에 귀양보낸다. 뿐만 아니라 동청은 엄승의 家人이 되어 陳留縣令이 되어 당당히 부임하고, 계림태수까지 된다. 결국 엄승과 엄승이 천거한 학자들은 삭직된다.

「一樂亭記」에서는 徐弼이 嚴嵩의 十二件罪를 들어 上奏하려하다가 乞骸疏를 올리고 謂恩而退하고¹⁶⁾, 權平仲의 말을 통해 徐弼退仕後 嚴嵩의 擊柄國事함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嚴嵩은 權平仲의 딸에게 請婚하였다가 거절당하고 平仲 死後에는 다시 權侍郎에게 청혼한다. 단호하게 거절당한嵩은 鄭懋卿을 시켜 侍郎이 涿郡 太守로 있을때 官錢

16) 筆寫本 古典小說集 5권(p. 21)에 “明嘉靖初有閩老徐公 名弼 字汝霖 國初元勲 徐將軍達之七世也… 是時公常侍經筵 恩遇日隆 每於朝退 帝必臨軒送之 公亦以遭遇知無不言矣 天子嘗從容問 古今治亂之由 輒正色對曰 在漢寶武陳蕃為政則治 中常侍黃明與政則亂 在宋司馬光呂海州執政則治 王安石呂惠卿參政則亂 在聖朝徐階夏春海秉政則治 嚴嵩鄭懋卿預政則亂 惟在時君用捨之如何耳 帝默然而罷朝 明日 公臚列嚴嵩罪誤政蠹國十二件事草詔將進 詣夫人所出示袖中彈文與之訣曰 皇上慈諒仁明庶幾熙皞之治而一自嚴嵩秉政之後 聖聽壅而無聞 國綱頽而未振”이라 하여, 上疏를 하려 하였으나 부인의 간곡한 만류와 아들 徐夢祥의 논리 정연한 설득에 감복하여 “即日歸計改革乞骸疏詣闈 (p. 24)”한다.

五十萬貝를 횡류했다고 모함하여 下獄시킨 뒤, 檄給事(侍郎의 從姪)를 통해 許婚케 하고 白放시킨다. 檄小姐는 男子巾服으로 出走했다. 檄鉉이 엄승을 탄핵했으나 天子는 嵩의 功罪가 半半이요 恩讐가 相半이니 다시 말말라 했다. 趙平은 嚴嵩에게 徐夢祥의 不孝 不義 不仁之人임을 草本으로 무고하고 經筵에서 엄승이 草本을 내어 上奏하자 巴陵縣 水遠山에 流配보낸다. 趙平이 嵩에게 檄夫人的 淫書事를 꾸며 알리니 천자는 친국하여 하옥시킨다. 결국 天子는 嚴嵩을 削職하고 田里에 돌려보낸다.¹⁷⁾

以上에서 우리는 嚴嵩의 役割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嚴嵩은 「沈小霞相會出師表」라는 明末의 短篇小說에 나타날 때부터 그의 實際行實을 빌어 奸惡한 人物의 典型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우리 古典小說에 受容된 경우에도 「謝氏南征記」, 「彰善感義錄」「一樂亭記」에서 본 바와 같이 간악한 妨害人物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한결같이 주인공이 엄승을 비방하는 글을 지었다고 무고하는 내용이 보인다. 嚴嵩이 방해인물로 나오는 우리 古典小說은 이 밖에도 더 있으며¹⁸⁾, 방해인물이 반드시 嚴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¹⁹⁾ 다만 여기에서는 이에 限定하여 論議하였을 따름이다.

結　　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듯하다. 「一樂亭記」는 그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謝氏南征記와 彰善感義錄의 小說로서의 價值를 높이 評價하고 이것들을 본받아 創作한 作品이

17) 天子在文華殿 謂晉公曰 先閱老嘗言 嚴嵩預政則亂 顧今嚴嵩黃扉三十餘年 擅弄威柄蠹國病民疾害忠良者前後何限 甚至於誣陷權氏於不測之地者此工兜少正卯之所無也 即命吏部 削嚴嵩職放歸田里 永世禁錮 天下翕然 有想望太平之意矣(筆寫本 古典小說集 5卷 p. 221).

18) 長篇 落泉登雲(5卷 5冊, 藏書閣藏)에도 奸臣 嚴嵩이 橫暴를 부린다.

19) 紅白花傳의 呂丞相은 奸惡한 人物이 아닌 것으로 나오며, 清代를 배경으로 한 南江月傳의 和紳은 嚴嵩과 거의同一하게 奸惡한 人物로 되어있다.

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보면 방해인물을 **嚴嵩**으로 설정한 것으로부터 妖女의 奸計로 본부인을 내치고 家庭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은 南征記와 感義錄에서 그대로 빌어온 것으로 보이며, 權소저가 엄승의 강제 청혼을 피하여 男裝하고 도주하던 길에 鄭소저를 만나 徐夢祥행세를 하고 후일 그를 생각하여 婚禮를 치르는 것은 彰善感義錄에서 진소저가 엄승의 수양자 조문화의 구혼(子婦로)을 피하여 男服으로 도피하다가 만난 백소저와 약혼자 윤여옥으로 가장하여 婚約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一樂亭記」에서 수차에 걸쳐 나오는 軍談은 彰善感義錄의 선산해 채백관을 征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이 밖에도 謝氏南征記와 彰善感義錄에 보이는 人名과 地名등이 두루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嚴嵩을 削職시키고 賢良科를 보여三十人을 取했는데 林潤 杜億 成雋謝敬安 柳聖讓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대목 같은 것이다.²⁰⁾ 여기에서 林潤은 花璿의 부인 林氏의 오빠이며(沈小霞相會出師表에서는 江西巡按御史), 成雋은 成부인(花郁의 누이)의 아들이고, 柳聖讓은 姚夫人이 낳은 딸 聰仙의 남편이요 光祿卿 柳僕의 아들이다. 杜億²¹⁾은 謝氏南征記에서는 杜康과 杜夫人(劉炫의 누님)의 아들이고 謝敬安은 謝氏부인의 동생이다. 一樂亭記에서 權小姐가 男裝을 하고 鄭小姐와 成禮한 후 지내는 곳이 凝香閣인데 感義錄의 花珍과 丑小姐의 침소가 凝香閣이다. 또한 雙桂村을 雙栢村으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謝尚書 謝夫人 成夫人 등의 이름이 나타나며 南征云云의 句節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自己의 約婚者와 結婚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사람을 爲해서 대신 約婚(혹은 結婚)을 하였다가 후일 한 남자를 함께 섬기는 이야기는 謝氏南征記에는 表面에 나타나지 않고 彰善感義錄에서 가볍게 다루어진 느

20) 是歲三月 行賢良科 取三十人 林潤 杜億 成雋 謝敬安 柳聖讓皆與焉(筆寫本 古典小說集 5. 亞細亞文化社. p. 221.)

21) 杜億은 女秀才移花接木(今古奇觀 第三十四卷)의 男子主人公이기도 하다.拙稿, “紅白花傳小考”, 全國國語國文學研究 發表大會抄, (1983), pp. 215-219 참조.

김인 반면 一樂亭記에 와서는 매우 重要하게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紅白花傳의 주요 화소인 바 苛纖素가 呂丞相의 아들 邦彥의 끈질긴 구혼에 견디다 못해 자기 대신 薛小姐를 桂一枝와 결혼시키게 하려고 男裝을 하고 결혼하여 半月을 함께 지낸다. 여기에서 薛小姐는 梁王의 二女인 義陽郡主의 딸로서 大長公主를 움직여 呂邦彥은 昭德宮 萬貴妃 所生 猶主(명현공주)와 혼인케 하고 薛·苟兩小姐는 同事桂一枝한다.²²⁾ 一樂亭記의 樓小姐가 鄭駙馬流와 湖園公主 사이에서 낳은 딸 鄭彩仙과 結婚하여 三日同宿하고 天子께 아뢰어 후일天子와 皇后가 主婚이 되어 廣寧宮에서 徐夢祥과 樓·鄭兩小姐가 함께 결혼하는 것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一樂亭記는 謝氏南征記 紅白花傳 彰善感義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지어진 作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彰善感義錄에는 또한 쌍동이 여동생인 尹夫人 대신 女裝한 尹公子가 嚴世蕃에게 가서 도리어 그의 여동생인 月화와 佳約을 맺는다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²³⁾ 이것은 후일 鄭進士傳이나 南江月傳²⁴⁾ 같은 作品을 낳게 하는 것으로, 그 원천은 「喬太守亂點鴛鴦譜」라는 명말 단편소설이 아닐까 생각한 바 있으며 한편 좋아하는 사람(약혼자)을 위해 자기 대신 美女와 맺어주려는 이야기는 「女秀才移花接木」이라는 명대단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一樂亭記」는 우리 古典小說 가운데 先行作品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中國 短篇小說들로 부터도 직접 간접으로 示唆를 받아 짜임새 있게 구성해 놓은 作品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22) Ibid. p. 215.

23) 拙稿, “喬太守亂點鴛鴦譜에 관하여”,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pp. 210-212.

24) 鄭進士傳은 十二回로 된 章回小說로서 雙童이 남주인공의 女裝結婚談과 奸人毒計談으로 이루어졌고, 南江月傳은 清代를 背景으로 방해인물 和紳, 景潤의 쌍동아들 夢弼이 누이 대신 女裝을 하고 和紳의 딸 경옥과 佳約을 맺는 것이 주요 플롯이다.